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김 경 은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가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2009)에서 시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3~5세에 해당하는 남녀 유아를 둔 부모 중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만을 포함하였으며, 1050명의 3~5세 유아를 둔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는 낮고 유아의 사회정서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높고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를 매개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유아와의 놀이에 덜 참여하며 이러한 낮은 양육효능감과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어머니가 덜 우울할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자녀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높은 양육효능감과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과 놀이참여도의 매개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의 신장을 위해 어머니가 자신의 긍정적 정서 및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유아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매개모형검증, 구조방정식

* 본 연구는 2011년 남서울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교신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leejay48@cho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혹은 양육자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성장해감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 영아는 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애착, 자율성, 신뢰감 등 사회·정서적 발달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일례로, 12개월이 되면 영아는 주변의 사람들을 인식하고, 사람들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Bohlin & Hagekull, 1993).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낯선 사람에게는 불안이나 공포를 나타낸다. 또한 또래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또래와 관계를 맺는 것이 서툴다.

한편,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기는 관심이 또래로 확장되면서 또래 및 중요한 성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사회정서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 시기 유아들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양육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또래와 노는 것을 더 즐긴다. 아직 또래와 함께 노는 기술이 부족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또래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호조정 과정 속에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점점 발전되어 간다. 이 시기에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친구에게 양보하거나 나누어가지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하기 시작한다(Van der Mark, Van IJzendor, & Bakermans-Kranenburg, 2002).

또한, 유아기 동안 다른 사람의 정서표현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4~5세경에는 친구가 왜 화가 났고 행복하고 슬픈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 유아는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또래와의 놀이에서 화가 나도 화를 참거나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il, 2007).

유아기 사회정서능력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영역을 통합하는 지식 및 기술로 구성된 다면적 개념이다(Domitrovich, Cortes, & Greenberg, 2007). 정서의 인식 및 표현, 정서규명, 상황적 지식과 정서조절을 포함하는 정서능력(Saarni, 1999)은 주의집중, 통제,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인지적 기술(Blair, 2002)을 필요로 하고, 사회정서능력의 또 다른 측면인 자기조절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조망하는 능력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필수적인 능력이다(Raver, Blackburn, Bancroft, & Torp, 1999). 유아기에서 초등학교시기로 넘어가기 전, 유아들은 행동조절, 규칙 준수, 또래나 교사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사회정서능력을 습득해야 한다(Campbell & Von Stauffenberg, 2008). 이와 같은 사회정서능력은 유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이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뿐만 아니라 출생 후 5세까지에 습득한 사회정서능력 및 기술은 학령기와 이후 성인의 성공적인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Hudson, 2010).

유아의 직접적인 환경이라 볼 수 있는 어머니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는 유아의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자로서,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어머니가 나타내는 정서, 태도 및 행동 등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 양육, 자녀와의 놀이상호작용 등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선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발달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근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아동의 초기발달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인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2~5세까지의 전반적인 영역의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eldman & Eidelman, 2009). 영아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감정, 인지 및 대인 간 뇌기능에서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아동기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 Tully, 2006). 특히, 우울한 어머니의 영아는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했으며 보다 자기지시적인 조절행동을 보였고(Field, 1992; Tronick & Gianino, 1986), 우울한 어머니의 유아들은 충동적인 공격성이나 높은 부정적 정서성을 보였다(Zahn-Waxler, Cummings, & Cooperman, 1984).

이처럼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인지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한다(Dodge, 1990).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낮고(O'Neil,

Wilson, Shaw, & Dishion, 2009) 자녀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낮고, 정서적인 표현이나 관심도가 낮아(Cohn, Campbell, Matias, & Hopkins, 1990; Hammen, 2003, Shaw, Dishion, Connell, Wilson, & Gardner, 2009), 자녀가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의 요구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이 떨어지고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녀는 위축, 불안, 수동성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가질 뿐 아니라 공격성이나 행동화와 같은 외현화 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Foster, Garber, & Durlak, 2008). 요컨대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양육효능감이란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에게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 단일수록 유아의 정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순, 2009)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에 대한 참여도나 지도를 예측하고, 부모의 참여나 지도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적응이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umow & Lomax, 200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동의 사회인지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uajardo, Snyder, & Petersen, 2009).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 Prinz, 2005).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도, 혹은 긍정적인 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놀이는 유아의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린 유아는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Ginsburg, 2007).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유아의 세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됨으로써, 유아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게 되고, 유아에게 보다 부드럽고 양육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부모는 자녀와 놀이하는 동안 자녀의 놀이를 계획해주시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하며 놀이의 수준을 더 높여주시기도 한다. 즉, 놀이에서 부모의 참여와 안내는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Russell & Saebel, 1997).

한편, 부모의 자녀양육이나 놀이에의 참여는 부모의 우울,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우울한 어머니는 어린 자녀에게 민감하고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의 놀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roy, Marks, Davies, Schacht, & Moran, 2010). 또한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를 칭찬, 격려하거나 지지해 주는 등의 긍정적인 정서나 행동은 덜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와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ster, Garber, & Durlak, 2008). 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예를 들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신체적 접촉, 정서표현 등)을 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 민감한 양육행동을 나타냈다(Bohlin & Hagekull, 1987; Izzo, Weiss, Shanahan, & Rodriguez-Brown, 2000). 여러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낙관적이고 자애로운 동시에 엄격하며 일관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delt & Eccles, 2001; Bandura, Ba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 등이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를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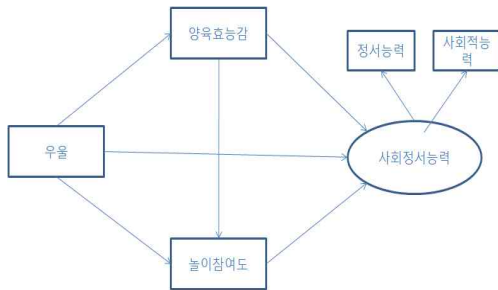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는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2009)에서 시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3~5세에 해당하는 남녀 유아를 둔 부모 중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기는 중요한 성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정서적 능력을 획득하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3~5세 유아 및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050명의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인 3~5세 유아가 본 연구의 자료에 포함되었다.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자료는 얻

어진 자료에 대하여 유효표본과 모집단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표본추출률을 계산하는 일종의 사후층화방법을 적용, 가중치를 계산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가 1.3%,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44.9%, 전문대졸업자가 16.2%, 대학교 졸업자가 34.6%, 대학원이상 졸업자가 1.9%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가 94.6%, 이혼 3.1%, 사별 .4%, 별거 .2%,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¹⁾

어머니의 우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지난 1주일동안 어머니가 느낀 정서로 측정하였다. 우울 문항은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마음이 슬펐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다.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것이다. ‘나는 현재 자녀를(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녀를

1)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2009)의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의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타당도를 제시하지 못하는 제한 점을 가진다.

(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녀(들과)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등의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5이다.

자녀와의 놀이참여도

본 연구에서 놀이참여도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당신은 자녀와 상상놀이(소꿉놀이, 전쟁놀이, 병원놀이, 학교놀이 등)를 합니까?’, ‘당신은 자녀에게 노래를 불러 주거나 같이 노래를 부릅니까?’, ‘당신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십니까?’, ‘당신은 자녀와 함께 운동이나 신체적인 활동을 하십니까?’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이다.

사회정서능력

본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은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능력을 측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정서능력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사회성요인이 28.7%, 정서능력요인이 23.2%를 설명하여 전체 변량의 51.9%를 설명하였다. 사회성 요인은 유아가 또래 및 교사,

다른 성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 ‘어른이 지켜보지 않아도 우리 아이는 친구들의 놀이에 질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와도 쉽게 놀이를 한다’, ‘우리 아이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우리 아이는 부모나 교사,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다’ 등의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다.

유아의 정서능력 요인은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 및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 아이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낀다’, ‘우리 아이는 친구가 울 때 친구의 기분을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놀이터에서 친구가 밀었을 때, 우리 아이는 화가 나지만 참는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7이다.

3. 자료분석

어머니의 정서, 양육효능감, 자녀와의 놀이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

하였다. 사회정서능력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정서, 부모효능감, 자녀와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성, 정서능력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효능감($r=-.32, p<.001$), 유아의 사회성($r=-.24, p<.001$), 유아의 정서능력($r=-.22, p<.001$), 어머니의 놀이참여도($r=-.20, p<.001$)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우울하다고 느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아동의 놀이에는 덜 참여하게 되며,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정서능력($r=.31, p<.001$), 어머니

표 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우울	양육 효능감	놀이 참여도	사회정서능력	
				정서	사회성
우울	1	-.32***	-.20***	-.22***	-.24***
양육효능감		1	.29***	.31***	.23***
교육참여			1	.25***	.21***
정서				1	.37***
사회성					1

*** $p<.001$

의 놀이참여도($r=.29, p<.001$), 유아의 사회성($r=.23, p<.001$)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하며, 유아의 정서능력과 사회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정서능력($r=.25, p<.001$) 및 사회성($r=.23, p<.001$)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능력과 사회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능력은 유아의 사회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7, p<.001$). 즉, 유아의 정서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가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2 참조). 다음 단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에서 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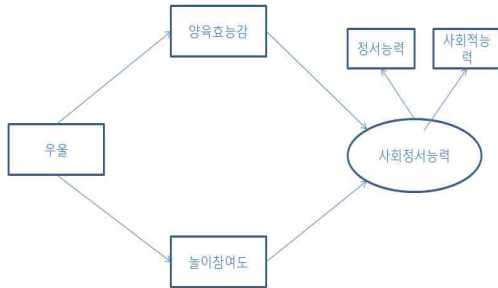


그림 2. 기본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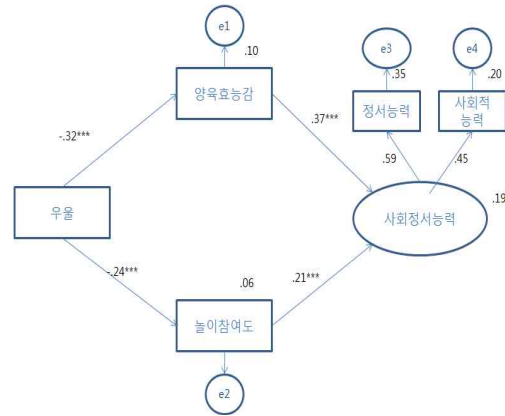
의 사회정서능력으로의 직접 경로 및 양육효능감에서 놀이참여도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자기효능감과 놀이참여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1 참조). χ^2 검증을 이용해 연구모형과 기본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Sobel(1982)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를 통해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2, 그림 3 참조). 즉, 어머니

표 2. 기본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 E	C. R
우울 --> 양육효능감	-.27***	.02	-11.57
우울 --> 놀이참여도	-.26***	.03	-8.31
양육효능감 --> 사회정서능력	.25***	.03	7.96
놀이참여도 --> 사회정서능력	.11***	.02	4.73

*** $p < .001$, * $p < .05$



*** $p < .001$

그림 3. 기본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beta = -.32$, $p < .001$)과 놀이참여도($\beta = -.24$, $p < .001$)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각각 $\beta = .37$, $p < .001$, $\beta = .21$, $p < .001$). 하지만, 기본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_{df=4} = 79.13$, $p = .00$, $TLI = .60$, $CFI = .84$, $RMSEA = .13$).

다음으로, 기본 모형에 어머니의 우울에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으로 가는 직접 경로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서 놀이참여도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여 양육효능감과 놀이참여도를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chi^2_{df=2} = 2.95$, $p = .23$, $TLI = .99$, $CFI = 1.00$, $RMSEA = .02$). 그리고 부분매개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참조).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beta = -.32$, $p < .001$)과 놀이참여도($\beta = -.16$, $p < .001$)를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놀이

표 3. 연구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 E	C. R
우울 --> 양육효능감	-.27***	.02	-11.57
우울 --> 놀이참여도	-.17***	.03	-5.36
양육효능감 --> 놀이참여도	.32***	.04	8.52
양육효능감 --> 사회정서능력	.23***	.03	6.92
놀이참여도 --> 사회정서능력	.10***	.02	4.13
우울 --> 사회정서능력	-.06*	.03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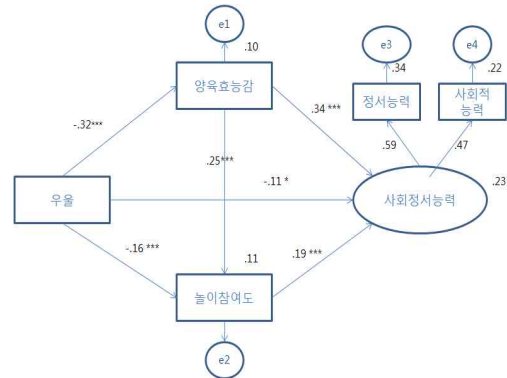
*** $p < .001$, * $p < .05$

참여도($\beta = .25$, $p < .001$)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beta = .34$, $p < .001$)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eta = .19$, $p < .001$)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eta = -.11$, $p < .05$).

한편, χ^2 검증을 이용하여 이전 단계에 추정한 기본 모형과 연구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Delta\chi^2_{df=2} = 76.18$, $p < .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그림 4 참조).

최종모형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²⁾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어머니

2) sobel 검증 공식은 다음과 같다



*** $p < .001$, * $p < .05$

그림 4.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의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Z = 6.67$, $p < .001$). 즉,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놀이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Z = 3.74$, $p < .001$). 즉,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를 매개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놀이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Z=4.23$, $p<.001$).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를 매개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간접적으로도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유아와의 놀이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으로,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높아지고,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유아와의 적극적인 놀이참여를 유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높이게 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

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 유아의 사회정서능력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우울하다고 느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아동의 놀이에는 덜 참여하게 되며,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신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 및 참여도를 떨어뜨리고 (Feldman & Eidelman, 2009; O'Neil et al., 2009; Shaw et al., 2009)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eldman & Eidelman, 2009; Goodman & Tully, 2006)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근 신생아시기부터 5세까지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영아에 대한 민감성(예를 들면, 아이에게 긍정적 정서를 보이거나, 아이를 지지해주거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등)은 낮고, 영아의 사회적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eldman & Eidelman, 2009).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2~5세까지의 유아발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의 민감성은 유아의 사회적 개입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되는데, 우울한 어머니의 경우 유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므로, 이 시기 유아가 급격히 증가하는 독립성, 창의성, 실행능력, 공감, 또래능력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상

당히 어렵다. 이로 인해 우울한 어머니의 유아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에 비해 사회정서능력이 떨어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에 대한 민감성이나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우울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 자신의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자녀양육의 부담감, 남편 및 시댁과의 불만족스런 관계 등과 같은 일시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어머니 우울의 근원을 밝힘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정서능력,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사회정서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하며,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Guajardo et al., 2009; Jones & Prinz, 2005) 및 인지발달(Shumow & Lomax, 2002) 등과 같은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은 부모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최선의 부모역할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들을 위한 현대사회의 바람직

한 양육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고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놀이를 안내해주게 되면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이 증진된다(Bornstein & Tamis-LeMonda, 1995; Russell & Saebel, 1997)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유아의 행동을 지지해주고, 유아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Grolnick, McMenamy, & Kurowski., 2006)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국내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모의 참여(parental involvement)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아동의 인지발달, 즉 학업성취와 관련된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조기교육열풍으로 인해 부모가 유아의 인지발달에는 심각할 정도로 과하게 참여하지만 부모가 유아의 정서나 사회성 발달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기초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또래 및 교사,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모들이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증진을 위해 유아

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놀이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를 매개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양육효능감이란 양육자가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Bandura, 1977; Coleman & Karraker, 1998),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 지지를 많이 하고 부정적 통제는 적게 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Jones & Prinz, 2005).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 자신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아동들의 적응능력을 높인다(Ardelt & Eccles, 2001). 즉, 부모 스스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놀이나 상호작용에 더 잘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놀이참여도는 부모와 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

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은 이후의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및 정서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성 및 정서능력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부모가 유아와 함께 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의 부모들은, 특히 자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 직장모와 아버지들은 유아와 함께 놀고자 하지만 어떻게 놀아주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부모가 유아의 놀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우울은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 및 놀이참여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게 되고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낮은 자신감은 자녀의 놀이나 양육에 무관심하거나 거부하게 된다. 사회정서능력의 기초를 형성해야 할 유아가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자극이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울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녀에 대한 민감성 및 참여도를 높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우울이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부모의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으며, 더불어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과 적극적 놀이참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척도의 타당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었다. 조사연구에서는 척도의 타당도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나, 이후에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뿐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을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영향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변인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 변인을 포함하여 다룸으로써,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에서 성차 및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순 (2009). 어머니의 집착과 양육 효능감 및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203-226.
-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Ardelt, M., & Eccles, J. S.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 944-97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lair, C. (2002). School readiness: Integrating cognition and emotion in a neurobi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entry. *American Psychologist*, 57, 111-127.
- Bohlin, G., & Hagekull, B. (1987). Good mothering Q: Maternal attitudes and

- mother-infant interac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8, 352-363.
- Bohlin, G., & Hagekull, B. (1993). Stranger wariness and sociability in the early yea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6, 53-67.
- Bornstein, M. H., & Tamis-LeMonda, C. S. (1995). Parent-Child symbolic play: Three theories in search of an effect. *Developmental Review*, 15, 382-400.
- Campbell, S. B. & Von Stauffenberg, C. (2008). Child characteristics and family processes that predict behavioral readiness for school. In A. Booth and A. C. Crouter, (Eds.). *Disparities in school readiness: How do families contribute to transitions into school?* (pp.225-258).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nroy, S., Marks, M., Davies, H., Schacht, R., & Moran, P. (2010). Maternal personality disorder and babies exposure to tobacco smoke.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3, 439-442.
- Dodge, K. (199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6.
- Domitrovich, C. E., Cortes, R., & Greenberg, M. T. (2007). Improving young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A randomized trial of the Preschool PATHS Program.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8(2), 67 - 91.
- Feldman, R., & Eidelman, A. I. (2009).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initial conditions shape the trajectories cognitive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cross the first years of life. *Developmental Science*, 12, 194-200.
- Field, T. (1992).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49-66.
- Foster, C. J., Garber, J., & Durlak, J. A. (2008). Current and past maternal depression, maternal interaction behavior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527-537.
- Ginsbu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 182-191.
- Goodman, S. H., & Tully, E. C. (2006). Depression in women who are mothers: An integrative model of risk for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in their sons and daughters. In C. L. M. Keyes & S. H. Goodman (Eds.), *Women and depression: A handbook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pp.241-28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lnick, W. S., McMenamy, J. M., & Kurowski, C. O. (2006). Emotional self-regulation in infancy and toddlerhood. In L. Balter & C. S. Tamis-LeMonda (Eds.), *Child psychology: A handbook of contemporary issues*, 2nd ed. (pp.3-25). New York: Psychology Press.
- Guajardo, N. R., Snyder, G. & Petersen, R.

- (2009).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practices, parental stress, child behaviour, and children's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fant & Child Development*, 18 (1), 37-60.
- Halberstadt, A. G., Denham, S. A., & Dunsmore, J. C. (2001). Affective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 79-119.
- Hammen, C. (2003). Interpers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wome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 49-57.
- Hudson, K. P. (2010). *In-home child care providers, training,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of Saybrook Graduate School and Research Center.
- Izzo, C., Weiss, L., Shanahan, T., & Rodriguez-Brown, F. (2000). Parent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 197-213.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41-363.
- Kail, R. V. (2007).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O'Neil, J., Wilson, M. N., Shaw, D. S., & Dishion, T.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ffica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Diverse Sample of Low Income Mothers. *Journal of Child Family Studies*, 18, 643-652.
- Raver, C. C., Blackburn, E. K., Bancroft, M., & Torp, N. (1999). Relations between effective emotional self-regulation, attentional control, and low-income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0(3), 333-350.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and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 111-147.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Shaw, D. S., Dishion, T. J., Connell, A., Wilson, M. N., & Gardner, F. (2009). Improvements in maternal depression as a mediator of intervention effects on early child problem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417-439.
- Shumow, L., & Lomax, R. (2002). Parental Efficacy: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 Tronick, E. Z. & Gianino, A. F. (1986). The transmission of maternal disturbance to the infant: In E. Z. Tronick, & T. Field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34. San Francisco: Jossey-Bass.
- Van der Mark, I. L.,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2002). Development of Empathy in girls during the second year of lif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ttachment, and temperament. *Social*

Development, 451-468.
Zahn-Waxler, C., Cummings, E. M., &
Cooperman, G. (1984).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hoo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1,
45-106.

1차 원고접수 : 2011. 7. 7

수정원고접수 : 2011. 8. 12

최종게재결정 : 2011. 8. 26

Maternal Depression, Parental Efficacy, and Involvement in Play and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Kyoung-Eun Kim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nner in which maternal depression, parental efficacy, and involvement in children's play related to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explored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and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play in maternal depression-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relationship.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of Index Studies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 in 2009.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Our results revealed that maternal depression related negatively to parental efficacy,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lay and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Parental efficacy related positively to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lay and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lay related positively to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Furthermore, parental efficacy and involvement in children's play mediated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upon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The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upon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occurred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maternal efficacy and involvement in pla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ortance of improving mother's positive emotion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skills should be considered when seeking ways to improve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Key words : depression, parental efficacy, involvement in play,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mediating effect, SEM